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집단음악치료가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신 다 민

집단음악치료가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신 다 민

인 준 서

신다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된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으로 총 14명 중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6명이 무선 배치되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 2회, 회기 당 50분씩, 총 12회기 동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공감척도를 사전-사후 측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Ranked ANCOVA를 사용하였고,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점수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취업준비생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공감능력에 있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또한 사전-사후 변화의 추이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공감능력이 향상된 반면, 통제집단은 평균점수가 오히려 감소하며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1. 발달장애인의 이해	6
1) 발달장애	6
2) 성인 발달장애와 취업프로그램	7
2. 공감능력	9
1) 공감능력	9
2) 음악과 공감	10
3) 발달장애와 공감	17
3. 집단음악치료	19
1) 집단음악치료와 공감	19
2)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21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측정도구	29
1) 공감 척도	29

3. 연구 설계	29
4. 프로그램 절차 및 내용	30
1) 프로그램 절차	30
2) 음악치료 프로그램	30
5. 자료 분석	40
IV. 연구 결과	41
1. 일반적 특성	41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42
3. 공감척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42
4. 공감척도에 하위변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44
V. 결론	48
1. 결론 및 논의	48
2. 제언	51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28
<표 III-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28
<표 III-3>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내 구성	30
<표 III-4>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30
<표 IV-1> 일반적 사항 - 나이	41
<표 IV-2> 일반적 사항 - 성별	41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42
<표 IV-4> 공감척도 전체점수 순위 간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3
<표 IV-5> 공감척도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43
<표 IV-6> 공감척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43
<표 IV-7> 공감척도 하위요인 순위 간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5
<표 IV-8> 공감척도 하위요인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45
<표 IV-9> 공감척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46

그 립 목 차

<그림 IV-1> 공감척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44
<그림 IV-2> 기쁨	47
<그림 IV-3> 슬픔	47
<그림 IV-4> 공포	47
<그림 IV-5> 분노	47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공감능력 부족은 발달장애인들의 대표적인 결함 중에 하나이다(이강선, 2014). 발달장애인들은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지 못하며, 얼굴표정이나 몸짓,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에서 사회적 단서들을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어 정서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인다(윤선아, 2010; 구신실, 2012). 또한, 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추상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에 숨겨진 본심이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박서정, 2015).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부적절한 사회 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을 보이게 된다.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제한적이고 단절된 인간관계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공감능력의 결여로 인해 타인과의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가져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찾지 못하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불편한 행동과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윤선아, 2010; 박서정, 2015). 또한 타인과의 관계 또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감정처리가 혼란스러울 때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임유경 외, 2010; 정진아, 2016).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거나,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타인의 요구가 스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를 이해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 반응들은 발달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이들이 인간관계를 맺거나 직업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감능력은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직업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직업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법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박승희 외, 2012; 장영민, 2015), 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학령기 특수교육부터 전환기 고등교육까지 기초적인 자립 생활 능력의 향상과 직업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육에서 가르치는 직업 교과목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직업 시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분야에서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만 가능하며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직업 교육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이정기 외, 2012). 이로 인해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종이 아닌 농·어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 특성에서 오는 사회적 행동이나 태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쉽게 해고 되는 실정이다(고명균, 2016).

Gruenhagen(1982)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지시를 파악하고 따르는 것, 동료와 작업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한다(박석돈, 2003, 재인용).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타인과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소

통을 피하거나 공격적이고 파괴적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적 소통은 고용주나 동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저하시켜 이들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하게 만든다(윤수용, 2015).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은 공감능력 결여에서 비롯되어 타인과 뜻이 통하지 않고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감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며 공유하는 능력인 동시에 자신의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의 수단이다(박민, 2012; 김혜영, 2016).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 존중, 배려하게 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도움 행동과 이타적 동기를 유발시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된다(박혜원, 2002; 강경아, 2004; 강석순, 2004; 김경미, 2011).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공감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타인과의 갈등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친밀감을 갖고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감능력이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일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공감 훈련으로 이루어졌으며(박혜원, 2002; 강석순, 2004; 이지영, 2006; 김경미, 2011), 장애학생을 위한 공감프로그램은 지적장애나 주의력결핍장애 유형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심혜미, 2015; 장우영 외, 2016).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효과적이었음을 밝혔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공감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감이라는 정서적 부분을 다루는 데에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 인지능력이 지체된 장애학생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술 분야는 감정을 교감하고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공감이라는 정서적 부분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에 효과적으로, 최근에는 음악이나 예술매체를 이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유진, 2014; 임주영, 2014; 정진아, 2016). 특히 음악은 기본적인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심상을 자극하고 촉발하여 공감을 유발시킨다(조영수, 2001; 임주영, 2014). 음악에 나타나는 감정은 지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 음악을 통한 정서적 경험은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공감하게 해주며(조정은, 2010),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감정들과 생각들을 음악을 통해 쉽게 표현함으로써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지혜, 2010). 발달장애인들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기 방어를 감소하여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수용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다(이경화, 2008). 이들은 기쁨, 슬픔과 같은 기본감정에서부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까지라도 음악 안에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최지혜, 2010).

음악을 활용한 공감능력의 향상은 집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집단 내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때문이다(이경화, 2008).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합주 활동은 각자가 맡은 역할의 음악적 조화를 통해 의사소통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며(조정은, 2010),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타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맞춰 나가며 공감능력이 향상된다(박혜영 외, 2012; 임주영, 2014). 또한 노래활동은 인지적인 공감을 다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노래 가사 속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느껴지는 감정을 수용하는데 용이하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노래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눔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다(임주영, 2014).

집단은 하나의 축소된 사회로, 집단 음악 활동 안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집단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경험들은 프로그램 이후 사회생활에 전이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화, 2008; 조은희, 2009; 황준성, 2013). 이에 본 연구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에게 필요한 공감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1)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한 발달장애 취업 준비생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공감능력 향상에 있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이해

1) 발달장애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란 유전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지체를 의미한다(윤치연, 2003).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설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ct)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가 정신지체 외, 뇌성마비, 시·청각 장애, 간질 등 다양한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지칭하기 위한 행정용어로 사용되었다. 2013년 미국 정신 의학회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2013)에 발달장애를 학령기 이전 발달 기에 출현하고, 보통의 발달과 다른 것으로 특징지으며, 그 때문에 일상생활의 곤란을 초래하는 상태로써 신경발달장애라고 정의하고, 지적 발달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특정 학습장애, 틱 장애, 운동 장애, 그 외의 신경발달장애를 포함했다(추연구, 2014).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의도와 필요성에 따라 발달장애의 개념 및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발달장애를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지체되어 신체적·정신적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하나의 장애 명칭이 아닌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적, 행·재정적, 교육적으로 유리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발달장애인법 제 2조, 2017, 7, 26 시행, 법률 14839호), 이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발달장애인법 제 1조, 2017, 7, 26 시행, 법률 14839호).

「발달장애인법」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발달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자폐성 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발달장애인법 제 2조, 2017, 7, 26 시행, 법률 14839호).

2) 성인 발달장애와 취업프로그램

사회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국가 지원으로 장애인구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구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기업체는 국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정책 실시로 장애 인력의 고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취업 또한 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아 길러줌으로서 일할 권

리와 의무를 일반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황준성, 2013). 그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은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적응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잔존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직업인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강동선, 신진숙, 2015).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업 적응력을 높여 좀 더 나은 수준의 근로 환경과, 임금이 제공될 수 있게 하며,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직업전문기관이나 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의 기회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장영민, 2015). 이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원, 특수학교 전공학과, 보건복지부 직업적응훈련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민간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의 직업재활훈련은 직업훈련의 내용을 다양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못하며,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수의 창출 문제로 인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혜전, 2014; 윤수용, 2015). 발달장애인들은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직무를 수행해야함에 따라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직종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더라도 체계화되지 않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은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더불어 취업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2. 공감능력

1) 공감능력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한다(Leiberg & Anders, 2006; 윤선아, 2010, 재인용). 공감은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개념 중 하나로, 높은 공감능력은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는 개인의 업무 능력과 더불어, 동료,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와, 효과적이고 적절한 소통능력이 필수적으로, 공감능력은 개인의 직업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공감능력은 인지적·정서적·의사소통적 요소로 구분된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과 사고 동기를 이해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관점을 아는 것으로 공감적 정서 또는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낸다(김기중, 2004). 인지적 요소의 역할수행을 통한 사회적 공감의 획득은 타인의 행위를 예측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대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김경미, 2011). 높은 인지적 공감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심리상태와 주변의 상황, 여건 등으로 초점의 대상을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박성희, 2004), 이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대인관계를 견고히 만드는 역할을 한다(이지영, 2006).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느낌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공감적 반향을 의미한다.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으로써(박성희, 1997), 공감에 대한 정서반응은 타인의 정서와

일치되게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며,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합되는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김경미, 2011). 타인의 정서에 대한 대리 경험은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이지영, 2006).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김기중, 2004), 자신이 공감한 타인의 내면세계를 상대방에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얼굴 표정, 억양, 시선, 신체의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공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경미, 2011). 높은 의사소통적 공감은 서로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대인관계를 발달시킨다.

공감능력은 인지적·정서적·의사소통적인 세 가지 요소의 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높은 공감능력은 개인의 사회적응력, 인성변화, 자기성장의 중요한 능력으로 작용하며(임주영, 2014; 김혜영, 2016),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혜원, 2002; 홍기묵, 2004; 김경미, 2011; 김유진, 2014).

2) 음악과 공감

음악적 공감은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음악적 공감을 느끼는 데에는 빠르기, 선법, 하모니, 소리의 세기, 음고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정현주, 2005). 음악의 보편적인 속성이 듣는 이의 공감을 일으킴에 따라 음악가들은 특정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대상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한 음악 요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최인숙, 2007; 황유나, 2011; 박얼, 2017). 이에 따라 음악적 요소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유도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

리듬의 시간적 요소는 다양한 정서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시간적 간격이 규칙적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정서를, 불규칙한 경우에는 불안정한 정서를 유발시키며(정현주, 2011), 이러한 정서반응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게 한다. 리듬이 신체 리듬에 관여함에 따라 리듬의 속도인 템포를 통해 활동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최병철, 2006; 정현주, 2011). 음악의 템포가 빠를수록 높은 활동 수준을, 느릴수록 낮은 활동 수준을 유도하여, 템포에 따라 활발한 상호작용 또는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정현주, 2011). 리듬적 요소는 정서적·신체적 공감을 유발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는 타인과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동조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정효숙, 2008).

리듬과 템포가 인간의 신체적 영역을 다루어준다면, 조성요소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어준다. 선법은 음들 간의 간격을 특정 규율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음계의 정서적 또는 감정적 속성을 부여하며(정현주, 2011), 각각의 선법들은 같은 음으로 구성되어있더라도 음정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과 특유의 분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오늘날의 선법은 중세 교회선법의 모양을 기초로 한 이오니아(Ionian), 리디아(Lydian), 믹소리디아(Mixo-Lydian)의 장음계적 선법과 에올리안(Aeolian), 도리안(Dorian), 프리지안(Phrygian), 로크리안(Locrian)의 단음계적 선법으로 이루어진다(최인숙, 2007). 각 선법으로부터 유발되는 감정과 분위기들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영화 음악에서 각 선법이 사용되는 장면, 그리고 선법을 바탕으로 한 대중음악의 분위기, 가사 등을 비교해보면 각 선법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열, 2017). 이에 따라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의 작곡가

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법을 이용한다(최인숙, 2007).

클래식이나 영화음악 작곡가들은 각 선법이 가진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선율뿐만 아니라 특징 음을 포함한 화성적인 형태로 선법을 사용한다(황유나, 2011). 황유나(2011)는 연구를 통해 교회선법과 영화장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클래식과 비교하여 선법을 정의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단조 계열의 도리안은 클래식에서 주로 느린 템포를 사용하고 화성적으로 쓰이는 반면, 영화 내에서는 보다 선율적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심리를 표현하거나 갈등이나 부정적인 장면 등의 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데에 주로 쓰인다고 했다. 에올리안은 특징 음이 없기에 클래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반면 영화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긍정적·부정적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거나 제 3자의 심리를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데에는 장조 계열인 이오니안, 리디안과 믹소리디안이 주로 쓰이고 있다. 오늘 날의 장조와 같은 형태인 이오니안은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선법으로 클래식에서는 전체의 곡을 구성하는 데에 쓰이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이며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리디안의 경우 클래식에서는 중 4도의 특징 음을 화음 안에 배치하여 발전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영화음악에서는 특징 음을 선율에 드러내고 반복된 화음을 사용하여 갈등이 해결되거나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되고 있다. 믹소리디안은 빠른 템포와 선율을 통해 영화에서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유발시킬 때 사용되고 있으며, 클래식에서는 영화와 달리 툭툭 튀는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이 외 로크리안은 유일하게 2개의 특징 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선법들 보다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클래식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거

나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음악은 하나의 선법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팝(Pop) 음악과 같이 대중성이 중요한 음악은 조성음악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박얼, 2017). 박얼(2017)은 선법이 사용된 팝 음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기존 조성에서 많이 변하지 않는 특성의 믹소리디안과 도리안의 사용이 제일 많으며, 프리지안과 로크리안은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화성적으로 사용되기보다 특징 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리디안은 가장 밝은 선법임에도 불구하고 선법 내의 증 4도 음정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판타지 영화와 같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Ron(1996)은 저서를 통해 청자가 각 선법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선법에 대한 감정을 일반화시켰다. 그 결과 장음계적 선법의 이오니안은 안정, 평화와 희망의 감정을, 리디안은 공격적이고 광적인 느낌을 유발시키며, 믹소 리디안은 탐색적이고 일시적인 유동적 느낌을 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단음계적 선법의 에올리안은 우울, 슬픔 등의 단조 특유의 어두운 정서를, 도리안은 불안정한 느낌 혹은 사색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며, 프리지안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로크리안은 긴장감이나 분노를 유발시킨다고 했다. 또한, 같은 선법을 사용한 음악이더라도 선법의 종류와 가사에 따라 느껴지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 믹소리디안과 같이 선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조성과 큰 괴리감이 없고 불협이 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가지 분위기에 쓰이는 반면, 선법의 특성이 강해지는 도리안, 리디안, 프리지안과 같은 경우 가사나 곡의 분위기가 선법의 특유한 색채감을 따라가게 된다(박얼, 2017).

선법이 감정의 속성을 부여한다면 멜로디는 감정을 가장 표면적이고 확연

히 드러내는 요소로써 음악적 공감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멜로디가 음악적 감정을 표현하는 뚜렷한 요소가 되기 때문으로, 정현주(2011)는 멜로디의 위치와 폭에 따라 감정의 표현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멜로디의 음역과 도약이 크게 진행되면 음악적 감정 역시 크고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작고 좁게 진행되면 절제되고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같은 조성의 곡이더라도 멜로디의 음역에 따라 높은 음역대의 곡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반면, 낮은 음역대의 곡은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다(김은영, 2004).

또 하나의 조성 요소인 화음은 선법 안에서 멜로디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화음의 형태와 전개에 따라 음악적 감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협화음의 경우 음악 요소들의 조화를 도모하여 멜로디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 혹은 그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맥락을 설정하며, 불협화음의 경우 불안정한 느낌을 유발하여 멜로디에 담긴 감정적 흐름에 긴장을 야기한다(정현주, 2011). 음악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조화로 이루어져 청자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시키며 음악이 유발시키는 감정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이 때 화음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경우 선율에 실린 감정의 흐름과 전달력이 촉진되어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전개를 보이는 경우 소극적인 전달력을 보이거나 안정된 정서가 유도될 수 있다(정현주, 2011).

음악이 표현하는 정서는 음악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유발될 수 있으며 개인은 음악활동을 통해 감정을 확대시키거나 표현하게 된다. 음악활동들은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 공감을 촉진시키고 긍정적 소통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정현주(2005)는 리듬과 조성의 음악적 요소와 가사의 언어적인 면이 통합된 노래 활동이 음악 안에서 인간의 공감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

가 된다고 했다. 노래가 나타내는 리듬적 구조와, 조성의 성격 그리고 가사의 주제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감정적 이슈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의 보편적인 요소들이 가사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때 공감이 촉진될 수 있다.

언어는 음악 안에서 가사가 되어 자신의 감정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리듬적·조성적 요소들은 언어가 더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이 가사라는 언어적 요소에 더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최아람(2012)과 박영선(2009)은 연구를 통해 가사가 인간의 감정과 담긴 의미를 빠르고 직접적으로 전달, 유도하여 정서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고, 가사에 따라 느끼고 반응하는 심리적·정서적 반응들이 달라진다고 했다. 가사는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 많은 의미와 감정들을 실을 수 있으며, 가사 안에서 구체화 된 개인의 감정과 사고들이 음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최아람, 2012). 또한 노래 가사가 가진 정서와 음악적 정서가 부합했을 때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더 잘 공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랑의 설렘을 주제로 한 가사에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리듬적·조성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음악적 요소에 신체적·정서적으로 공감하며 가사의 주인공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가사더라도 어둡고 처지는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음악적 요소와 결합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서적 반응과 이질감을 느껴 공감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가사를 통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쟁점들이 투사되고 표현됨에 따라, 인간은 노래 안에서 자신의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받고(정현주 외, 2010), 음악으로 위로받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음악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매우 보편적임을 확인받고,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전이시키며 공감을 느끼게 된다(정현주, 2011).

언어 표현이 구체적이고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악기는 비언어적 소통의 수단이 되어 은유적·상징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연주 활동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이슈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어,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의 정도와 무게감이 악기의 음색과 선율로 표현될 수 있다(정현주, 2011). 악기가 지닌 다양한 음색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내용과 정서를 자극하고, 같은 음악이더라도 각기 다른 느낌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최병철, 2006; 정현주, 2011). 악기 음색은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가 되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일치하거나 상반되는 정서를 유발시키는 특정한 음색의 악기에 흥미를 보일 수 있다. 유발되는 감정의 진행은 선율로 표현되어(정현주, 2011), 개인이 느끼는 감정 변화에 따라 선율의 리듬적·구성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의 변화는 악기 연주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주 안에서 보이는 음악적 특성은 음악 외적 환경에서 보이는 소통 양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정현주(2011)는 연주의 강도와 리듬은 개인의 내적 성향과 소통 양상을 나타내어, 개인의 감정표현이 적극적이고 개인 위주의 소통 양상을 보이는 경우 연주 강도가 세고 자신이 연주하는 리듬이 두드러지는 반면, 소극적이고 타인에 의존하는 소통 양상을 보이는 경우 연주 강도가 약하고 리듬 연주가 단순화 된다고 했다. 이러한 양상들은 연주 활동 안에서 자신의 연주를 만들어 나가거나, 조절하고 타인의 소리와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음악적 감정은 청자, 음악, 처한 상황 사이 상호작용의 복잡한 결과로, 청자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음악을 조건화 시켜 특정 음악을 특정 상황과 연결하게 된다. 음악의 작용은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었던 때의 전체적인 상황과 동반했던 감

정을 재 경험하게 한다(Drosser, 2015). 이러한 감정들은 관련된 기억에 대한 감정의 정도에 따라 강하게 각인될 수도 있고 약하게 각인될 수도 있으며, 듣는 사람의 감정과 음악적 감정이 얼마나 동질한지 혹은 친숙한지에 따라서 이입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은영, 2004). 개인은 음악적 정보 안에서 인지적·정서적인 차원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감정, 행동 등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이승현, 2013). 음악으로부터 유발되는 감정을 음악적 요소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까지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음악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며 이루어진다. 음악은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 혹은 안전한 통로가 되어 타인과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음악 환경에서 보인 음악적 소통이 사회적 소통으로 전이되며 공감능력의 향상을 일으키고, 사회에 개인을 통합시킬 수 있다(Bruscia, 1998).

3) 발달장애와 공감

공감능력은 타인을 경청하고 정서를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유진, 2014). 특히 감정은 공감의 핵심적인 요소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능력의 기본이 되며 이를 수용하고 교류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이강선, 2014).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타인의 주관적 느낌이나 사고를 공유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윤선아, 2010).

발달장애인들은 공감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에 둔감하며(윤선아, 2010),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표출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발달초기 단계부터 회피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관심하여 관계 맺기 시도를 보이지 않으며, 적응행동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채원, 2016). 이러한 어려움들로부터 비롯되는 정서불안은 공격성 등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타인의 감정과 마찰이 생기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이게 된다(임유경 외, 2010).

공감능력은 발달장애인의 부족한 사회적 영역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타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강선, 2014).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 또한 강조하여 전체적인 공감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심혜미, 2015). 공감능력이 사회적응 행동, 적절한 감정의 표현과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기관의 현황, 실태와 방안, 향후 과제 등의 조사 연구와 전환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추적연구, 현상학적 연구로 이루어졌을 뿐이며(박경숙, 2002; 이정기 외, 2002; 최평임, 2009; 김정열, 2011; 박승희 외, 2012; 윤수용, 2015; 고명균, 2016),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기술을 위한 프로그램과 척도가 개발되고 연구됐음에도(이달엽 외, 2004; 박재국 외, 2008; 이성하 외, 2012; 문장원, 2016),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에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

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중재의 효과와 일반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들의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적·사회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집단음악치료

1) 집단음악치료와 공감

인간은 음악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이 유발되고, 유발된 감정은 집단 안에서 표현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 음악적 요소가 일으키는 정서는 개인적 요소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과 기억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음악에 의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정현주, 2011). 집단원들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기억에 대해 나눔으로써 서로의 피드백을 통한 감정의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경험과 정서가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며(정현주, 2011),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점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집단 상호작용은 집단이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집단은 음악이 유발시키는 정서와 동일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원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감정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집단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의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동

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동일한 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이승현, 201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은 신체적·정서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며, 개인이 느낀 정서를 악기나 신체로 표출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느끼게 된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활동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타인과의 소통을 격려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적절하게 구조화된 음악활동들은 집단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집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표현을 유발시키고, 상호 간의 지지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Yalom & Leszcz, 2008). 집단은 기존의 대중적인 노래를 활용한 활동 안에서 음악이 유발시키는 보편적인 감정과, 조성이나 가사 등의 음악적 요소들로부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 나눌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의 집단원이 모여 노래 주제에 대해 나누고 동일한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지지와 위로를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이 느끼지 못했거나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감정에 대해 발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악기로 표현하는 활동은 집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악기연주는 노래가 유발시키는 감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됨과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감정을 구체화시켜 집단이 더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한다.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음악적·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며(정현주, 2005; 양종모, 2012), 집단은 악기 연주를 통해 타인과 음악적으로 교감하며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개인에게 집단음악치료는 하나의 축소된 사회 환경으로써 타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된다. 개인은 집단음악치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능력을 습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이지아, 2005).

2)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에서 음악은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고 표현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음악으로부터 전달되는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신체적으로 표현한다. 발달장애인들은 노래 가사를 통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악기로 연주하며 그 감정을 확장시키고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음악 안에서 표출하고 확인하게 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적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최병철, 2006).

감정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경향성을 수반한다. 감정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행동을 일으키는 단서로 작용하여, 유쾌하고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에는 접근 경향을, 불쾌하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에는 회피 경향을 유발시킨다(김재휘 외, 2009). 발달장애인들 집단음악치료 안에서 타인과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부정적 감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타인과 정서적·신체적으로 소통하며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음악적 환경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며, 반대로 사회적인 행동의 성향은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행동양상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김주영, 2005). 발달장애인들은 집단음악치료의 비언어적 환경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하며, 집단원 서로가 격려함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타인과 관계 맺는 경험은 공감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며 이들이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다음은 다양한 집단 음악치료 기법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 향

상을 위한 기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래

노래는 다양한 요소가 통합된 활동으로, 음악적 요소가 발달장애인의 정서적·인지적 자극을 도와 공감능력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노래의 요소들은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통로가 된다. 발달장애인들은 노래를 감상하거나 직접 부르는 활동 안에서 노래의 조성적 요소를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리듬적 요소가 이들의 신체적 자극을 유발시킴으로써 타인과의 정서적·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가사와 결합되어 발달장애인의 공감을 더 쉽게 이끌어 낸다. 가사라는 언어적 요소와 멜로디, 리듬, 화성과 음색 등의 음악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데 있어 언어보다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최소림, 2006). 노래를 개사하거나, 채워 부르는 등의 가사를 활용한 활동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표현을 이끌어내기도 하며, 집단이 공통적인 관심 혹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정현주, 2005). 노래 가사를 통해 주제가 제시됨으로써 인지 능력이 지체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직접 채운 가사들을 바탕으로 집단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부름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관점에 대한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집단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목소리는 표현과 소통의 도구로써, 노래를 부르는 동안 표현되어 나오는 감

정, 느낌, 정서 상태 등은 말로 대화할 때 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오선화, 2004). 타인이 자신에게 전하려고 하는 감정, 정서 등의 뉘앙스를 리듬과 억양의 특성을 통해서 전달받고, 반대로 자신도 억양, 리듬, 빠르기, 크기, 음색 등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상대와 소통하게 된다(정현주, 2011). 목소리를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감정 표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감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인지적으로 느끼며 타인의 감정까지 공감하게 한다.

(2) 악기 연주

악기 연주를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은 감정과 에너지를 정화시켜, 부정적인 내적 정서를 배출시키거나 정화시킬 수 있다(김지수, 2015). 악기는 발달장애인들의 표현을 상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감정이라는 내적 표현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발달장애인들은 악기의 소리나 연주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해내고, 연주하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하고 부적응적인 반응 양상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적응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타악기 연주는 음악적·비음악적인 의사소통, 인지발달, 자아표현 등을 자극하는 음악적 개입의 수단이 된다(박경화 외, 2005). 특별한 능력 없이도 청각과 촉각의 피드백이 제공되는 타악기의 특성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충족은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표현을 촉진시켜 악기를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일으킨다. 특히 무울 타악기는 선율 악기에 비해 뚜렷한 음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주하는 데에 있어 맞고 틀림이 비교적 덜하다. 발달장애인들은 타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

안에서 자신감을 부여받게 되고 타인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타악기를 연주하며 느끼는 다양한 촉각 자극은 발달장애인들이 보이는 음악적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손으로 타악기를 연주하며 느끼는 직접적인 촉각자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연주 방식과 소리가 조절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들의 내적 표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말렛을 사용하여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맨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시·지각과 신체의 협응 능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연주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이들은 말렛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습득하게 되고, 간접적인 자극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타악기를 연주하며 리듬으로부터 유발되는 관계적 역동을 통해 악기 연주 안에서 독립적 혹은 협동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간단한 리듬 패턴을 만들거나 자신의 템포로 리듬을 연주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리듬을 모방하거나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다(이수경, 2005). 또한 다른 악기에 비해 다양한 크기, 소리, 모양과 색감을 가진 타악기는 자극에 예민한 발달장애인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악기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의 과정 안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양한 악기 중 토의를 통해 자신의 악기를 정하고, 순서 혹은 지시에 따라 연주해나감으로써 차례 기다리기, 양보하기,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출하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즉흥연주는 비 구조화된 연주로 집단원 간의 음악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고, 개인에게 일체감과 동시성을 발생시키며, 음악적·비음악적 의사소통을 격려할 수 있다(Bruscia, 1989).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면

발달장애인들은 음악과 동일시되어 자신의 정서를 대변하는 악기 음색을 선택하고 표현에 적합한 연주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리듬 악기인지 멜로디 악기인지, 그 악기의 재료가 나무인지 금속인지, 음역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악기가 가진 다양한 음색 중 자신의 감정과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악기를 선택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과정에서 같은 음색을 가진 악기더라도 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을 함께 나눔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음색 외에도 연주 안에서 만드는 선율라인과 리듬패턴은 이들의 사고와 감정의 표현, 진행을 내포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음악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소리와 연결하거나 투사하여 감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음악으로 창조해냄으로써 내면의 갈등 혹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정현주, 2011). 발달장애인들은 즉흥연주라는 자유로운 틀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표출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오선화, 2004; 김지수, 2015).

발달장애인들은 악기연주 활동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과 타인이 연주하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져 음악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완성된 음악의 미적인 청각자극은 발달장애인들이 타인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자발적인 관계 맺기 시도를 촉진시켜 공감능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3) 음악극

음악극은 이야기, 음악, 미술이 결합한 장르로써 다중 자극을 통해 다양한

정서 경험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이끌어내며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이다(김주영, 2005). 발달장애인들은 인지, 정서, 신체, 언어 등 다양한 능력의 지체로 인해 전 영역에 걸쳐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요소가 가미된 음악극을 사용한 중재가 효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공감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음악극 속 이야기의 주인공과 동일시되며 다양한 감정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주효주, 2012). 음악과 이야기가 엮어내는 구조 속에서 집단원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생각을 조절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정현주 외, 2005). 음악은 내재된 감정을 탐색하고 해소하는 통로로써, 음악극 안에서 음악을 통해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승화시킬 수 있다(정현주, 2005). 발달장애인에게 음악극은 음악 구조라는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하며, 타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 및 의사를 파악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김지은, 2016).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관련된 사회적 단서들을 정의하고,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이정남, 2008). 이는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하거나, 다양한 단서들을 설명하여, 상황 대처 능력과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지에 대해 돕기 위해 사용된다(이지영, 2013). 이야기는 가사로 사용되며 리듬과 조성의 음악적 요소들이 더해져 발달장애인들의 이슈 혹은 무의식적인

감정이 음악에 투사될 수 있게 한다. 음악 안에서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집단원 서로가 지지하거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며,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음악극과 상황이야기는 발달장애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상황과 여기서 비롯되는 감정 및 행동 반응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발달장애 인들은 음악과 이야기가 결합된 음악적 환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되며, 자신의 현재 상황과 문제들을 음악 안에서 동일시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경기도 G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된 20-30대 발달장애 취업준비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8명은 실험집단, 나머지 6명은 통제집단에 무선 배치하였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	나이	성별	급수
1	21세	남	2급
2	21세	남	2급
3	22세	여	2급
4	22세	남	1급
5	22세	여	1급
6	22세	남	1급
7	23세	여	2급
8	23세	여	2급
9	24세	여	3급
10	25세	여	1급
11	25세	여	2급
12	27세	여	2급
13	33세	남	2급
14	39세	여	2급

<표 Ⅲ-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나이	20대	12	14
	30대	2	
성별	남	5	14
	여	9	
급수	1급	4	14
	2급	9	
	3급	1	

2. 측정 도구

1)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취업준비생들의 공감 측정을 위해 Feshbach와 Roe(1968)가 개발하고 홍화진(1987)이 번안한 ‘공감 척도(Affective Situation Test: AST)’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쁨, 슬픔, 공포, 분노 4가지 감정에 대한 상황 2개씩, 총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야기와 함께 제시되는 그림은 각 3장씩 모두 24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치료사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며 이야기를 들려준 후 각 감정마다 3개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두 응답에 따라 점수화한다. 점수 산출 방법은 각 질문 당 부여된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0-2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홍화진(198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각 이야기의 줄거리와 그림 그리고 질문과 점수산출 방법은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음악치료가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감 척도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결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프로그램 절차 및 내용

1) 프로그램 절차

<표 III-3>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내 구성

단계	소요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시작 노래 부르기, 워밍 업(warming-up) 활동
본 활동	40분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활동
마무리	5분	소감 나누기, 마침 노래 부르기

2) 음악치료 프로그램

<표 III-4>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내용

회기	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1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가 작곡, 작사한 인사 노래 배우기 · 신체 리듬하며 소개하기 · 치료사가 작곡한 노래에 규칙 가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노래는 집단에게 활동의 시작,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활동에 대한 준비와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 신체 리듬을 사용해 이중자극을 제공하여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의견 조절과 수용을 통해 공감을 경험하고 협동심을 느끼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Happy Th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명확한 구분과 인식은 공감을 위한 예비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 노래 안에서 상황이나,

2	<p>(기쁨) 감정 이해 및 공감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뻐던 경험 나눈 후 노래에 넣어 부르기 2. 치료사가 개사한 가사를 듣고 가사에 대한 감정 공감하기 예) 내가 만약 친구에게 먼저 웃으면서 안녕 인사하면 내가 만약 친구에게 가서 예쁘다고 말하면 멋지다고 말하면... 친구는 기분 좋을 거야 3. 내가 만약 -라고 말하면 기뻐지 가사 채워 부르기 	<p>사회적 단서 및 관련 반응들을 자연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한다(박현옥 외, 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야기를 활용한 증재는 다양한 상황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호작용 증가에 효과적으로(김미영 외, 2006; 반지정, 2010) 집단은 음악 활동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한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느끼는 연습을 한다.
3	<p>(슬픔) 감정 이해 및 공감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사가 개사한 가사를 듣고 가사에 대한 감정 공감하기 예) 친구가 이사를 갈 때 아픈데 혼자 있을 때... 나는 기분이 슬퍼요 2. 슬펐던 경험 나눈 후 노래에 넣어 부르기 예) -할 때 나는 기분이 슬퍼요 눈물이 나요 3. 슬픈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 나눈 후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쁜 감정에 사용된 노래 “Happy Things”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일들에 대한 가사로써 집단이 쉽게 이해하고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누어 봄으로써 감정을 확인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교류하도록 한다. 집단이 직접 어떻게 말하면 친구의 기분이 좋을지 채워봄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슬픈 감정에 사용된 노래 “슬픈 노래”를 집단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개사하여 감정과 연결지어봄으로써 노래를 통해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 불

	예) -라고 말해요 슬픈 친구를 위로해요	러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한다.
4	(분노) 감정 이해 및 공감 3	· 선법 스페니쉬(Spanish) 1. 싸우는 상황의 뮤지컬 시청 후 감정 공감하기 예) 극 중 사람들의 기분 화날 때 신체, 마음의 변화 등 2. 화났던 경험에 대해 북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3. 화가 날 때는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방법 나누기 예) -하는 게 어때?
5	(공포) 감정 이해 및 공감 4	· 선법 홀 톤(whole tone) 1. 빨간 모자 이야기 들은 후 감정 공감하기 예) 빨간 모자의 기분은?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서울 때 신체 또는 마음 변화 등 2. 무서웠던 경험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나누기 3. 벨로 표현하기 (반주:Caug, Daug, Eaug, 벨: C,D,E,F#,G#,A#)
		· 음악이 사용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이 보다 쉽게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감정과 연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경험과 연관지어 보거나, 자기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나누며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한다. · 선법 스페니쉬(Spanish)는 코드가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구조로 선법이 유발시키는 정열적인 분위기에 따라 감정의 흐름이 유도될 수 있다. · 북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연주하는 행위가 즉각적인 소리의 피드백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북을 두드리지는 것은 분노, 증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배설하게 해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한다(Boxil, 1985). · 선법 홀 톤(whole tone)은 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계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며, 증 화음 특유의 분위기를 반주로 제공함으로써 무서운 감정과 연관 지어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집단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벨은 금속악기로써 특유의 음색과 높은 음역은 무서운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타악기에 비해 비교적 세심한 연주를 필요로 하여 집단이 악기 연주에 더욱 집중하게 하며 치료사와 맞춰나가는 경험을 통해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p>6 나의 감정 표현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기분을 악기로 표현하고 이유 이야기하기 · 노래 “Yes, You Can” 악기로 표현하며 노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악기를 통해서 표출하게 해준다(김지수, 2015). 기분에 대해 악기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한다. 이를 그룹원과 나누는 활동은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통해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 노래 “Yes, You Can”은 노래가 제시된 후 일정한 마디가 제공되어 자신의 감정가사에 따른 악기 표현이 가능하다. 다 같이 부르며 연주하는 후렴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가 연주하는 멜로디의 감정에 따라 가사 채우고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노래의 구조 안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가사를 통해 인지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임주

7	<p>나와 타인의 감정 이해 하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리는 악기 연주와 함께 불러보기 예) 난 네가 -라고 말하면 기뻐 난 네가 -라고 말하면 슬퍼 난 네가 -라고 말하면 화나 	<p>영, 2014). 주어진 감정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가 멜로디와 가사 속에서 표현되며 음악적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는 단순한 멜로디의 한 가지 즉흥 노래를 감정에 따라 조성, 빠르기를 달리 함으로써 음악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노래로써 표현되는 다양한 감정을 각기 다른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감정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8	<p>나와 타인의 감정 이해 하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에 따라 감정 알기 및 모방하기 (응용: 동작과 함께하기) · 감정 표현 즉흥 연주 및 모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짓, 목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정서적 의사소통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다양한 표정, 목소리, 상황의 변화 속에서 적절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윤선아, 2010). · 즉흥 연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악으로 나타낼 수 있다(정현주, 2011).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감정을 이해 및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모방하기 위해 집중하는 과정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공감을 경험한다.

9	<p>나와 타인의 감정 이해 하기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내 친구 소피”: 듣고 내용 나누기 예) 주인공의 감정, 자신의 감정 왜 그렇게 느꼈을까 뭐라고 이야기 해줄까 · 어울리는 악기를 골라 극의 감정변화에 따라 연주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의 연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찰함으로써 공감능력이 향상된다(윤선아, 2010). 음악극 “내 친구 소피”는 일상생활 이야기와 이로부터 유발되는 감정이 연결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어, 집단의 현실적인 상황과 감정에 대해 연관지어보고 나누어봄으로써 공감을 느낄 수 있다. ·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악기들이 가진 모양, 음색, 연주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에 대해 효과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같은 구조 안에서 타인의 연주와 자신의 연주를 비교하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10	<p>공감 표현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야기 나눈 후 감정 유추하기 · 2개의 코드 진행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부르기 · 감정과 어울리는 악기를 골라 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악기 연주와 함께 함으로써 집중 및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감정이란 추상적 요소를 악기의 실제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11	공감 나누기 · 타악기 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 연주 활동은 리듬적 배경과 전경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서로의 에너지 수준을 공유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악기를 사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 하게하며, 타인과 리듬을 맞추고 조절하며 성공적인 연주를 완성하는 과정은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임주영, 2014).
12	소감 및 종결 · 소감 나누기 · 노래 “Mo’ Better Blues”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넣어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을 나눔으로써 지나온 프로그램과 자신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노래 “Mo’ Better Blues”는 5음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선율로, 그룹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채워 부르기 용이하다. 일정한 멜로디와 리듬이 주고받는 구조로 그룹원의 표현을 되돌려줄 수 있으며, 타인의 노래를 경청하고 반영해주는 과정 속에서 수용과 공감을 경험한다.

노래 선곡은 발달장애인 취업 준비생의 효과적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곡과 선법들로 구성된다. 2회기에서 사용된 노래 “Happy Things”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래로 집단이 기쁜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사용된다. 이 노래는 장조의 곡으로, 가사가 높은 음역대의 멜로디와 큰 도약의 선율과 결합되어 밝은 정서를 일으키기에 적절하다.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는 긍정적인 지지를 일으키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손현자, 2009), 집단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북점 리듬의 멜로디가 집단의 자동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켜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화려한 코드 진행과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유발시킨다.

3회기에서는 집단이 슬픈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김광석의 “슬픈 노래”를 사용한다. 원곡은 기타로 연주된 노래로 단선율 멜로디와 아르페지오 반주의 다소 단순한 곡이지만 슬픈 상황의 가사와 결합되어 슬픔과 쓸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한 코드 진행과 선율은 집단이 가사 내용에 더욱 집중하여 음악적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선율의 폭이 적어 그 감정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2-3회기 노래들의 가사는 집단의 상황에 맞게 치료사가 개사해 사용함으로써 집단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여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비교해보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집단이 음악 안에서 표현하는 감정의 정도에 따라 반주의 전개와 주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집단이 더 음악에 몰입하고 효과적으로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4회기는 집단이 화나는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스페니쉬 선법을 사용한다. 이 선법의 사용은 스페인 민속음악에 근거하여 정열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기본의 반주 패턴은 I-II-III-II-I 로

써, 순차적인 상승과 하강의 화성 진행에 따라 집단의 감정 흐름을 유도할 수 있으며 3화음, 아르페지오, 자리바꿈 등의 화성적 반주에 따라 감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풍부한 화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리듬과 결합되어 강한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키며, 이를 화나는 감정과 연관시켜 집단이 감정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5회기에서 사용된 홀 톤 스케일은 온음 간격의 6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성이 느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묘한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공포 분위기를 유발시킬 때 주로 사용된다. 홀 톤 스케일의 사용은 집단이 무서운 감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증 화음 특유의 분위기와 벨 음색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감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6회기의 노래 “Yes, You Can”은 집단원이 자신의 기분을 악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멜로디가 제시된 후 일정한 마디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가사 표현에 이어서 악기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같은 멜로디가 2번 반복됨으로써 집단원은 서로의 표현을 가사로 반영해줄 수 있으며, 다함께 연주하는 후렴구 안에서 타인의 소리를 듣고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곡의 코드와 멜로디가 모두 협화음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집단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표현이 음악 안에서 수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IV-V의 단순한 코드 구성으로 이루어져 집단이 곡을 쉽게 습득하고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코드의 변형과 조합을 활용해 화려한 반주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의 미적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12회기에서는 집단이 듣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채워 부를 수 있도록 노래 “Mo’ Better Blues”가 사용된다. “Mo’ Better

Blues”는 5음의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하게 가사를 채워 부르기 용이하며, 각기 다른 음역대에서 멜로디를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블루스는 정해진 구조 안에서 음악 요소들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 음악이 전개하는 멜로디나 리듬 외에도 다양한 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거나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은 음악 형식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 성별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고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과 Fisher's exac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점수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에 비해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ANCOVA(공변량분석)의 비모수검정인 Ranked ANCOVA(순위공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Ranked ANCOVA의 절차는 각 변인에 순위변수를 생성하여 회기분석 한 후 잔차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사전-사후 동일하지 않은 차이를 없앤 후 그만큼 늘어난 사후의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Mann-Whitney U 검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사후 효과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위의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14)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의 빈도를 알아보고 나이의 경우 Mann-Whitney U 검정, 성별의 경우 Fisher's exact 검정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IV-1>, <표 IV-2> 와 같다.

<표 IV-1> 일반적 사항 - 나이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U	Z	p
	실험집단(n=8)	통제집단(n=6)			
나이	23.25(2.05)	27.17(7.20)	18.00	-.79	.432

<표 IV-2> 일반적 사항 - 성별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2	3	5	35.7
	여	6	3	9	64.3
계		8	6	14	100.0

Fisher's Exact Test $p = .580$, $df = 1$

검정 결과 나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성별 또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공감능력에서 동질한 수준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감 척도의 사전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공감 척도와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따라서 두 집단은 무선 배치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치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8)	통제집단(n=6)			
공감	7.75(62.00)	7.17(43.00)	22.00	-.26	.793
기쁨	2.13(.99)	2.83(1.33)	16.50	-1.08	.282
슬픔	2.63(2.13)	1.50(2.35)	17.00	-.93	.353
공포	2.00(2.00)	1.50(2.26)	21.50	-.33	.738
분노	2.50(2.39)	2.17(2.40)	21.50	-.33	.742

3. 공감척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공감 척도 전체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공감 척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2) = 6.69, p < .05$). 이에 대한 결

과는 <표 IV-4>, <표 IV-5>와 같다.

<표 IV-4> 공감척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n=8)	1.37	2.17	.77
통제집단(n=6)	-1.83	2.46	1.00
합계		2.75	.74

<표 IV-5> 공감척도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
집단-간	35.21	1	35.21	6.69	.024*
집단-내	63.19	12	5.27		
합계	98.4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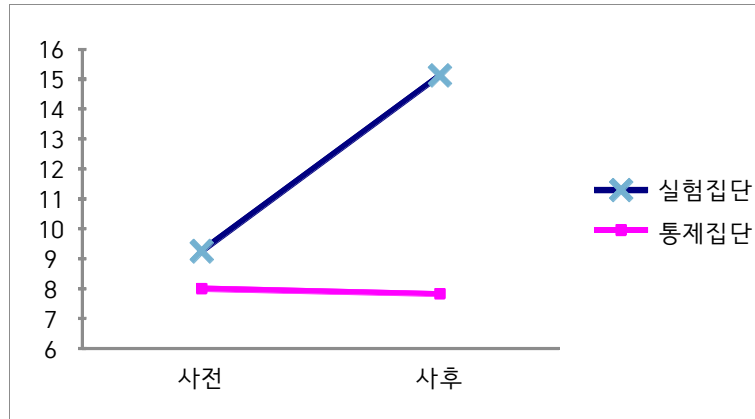
* $p < .05$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평균이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 <그림 IV-1>과 같다.

<표 IV-6> 공감척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9.25(6.61)	15.13(7.61)	-2.41	.016*
통제집단	8.00(7.75)	7.83(6.91)	-.14	.892

* $p < .05$



<그림 IV-1> 공감척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4. 공감척도의 하위변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공감 척도 하위변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공감 척도의 하위변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기쁨($F(1,12) = 10.38$)이 .01, 공포($F(1,12) = 7.73$)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슬픔($F(1,12) = .11$)과 분노($F(1,12) = 3.71$)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 <표 IV-8>과 같다.

<표 IV-7> 공감척도 하위요인 순위 간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기쁨	실험집단(n=8)	2.16	3.40	1.20
	통제집단(n=6)	-2.89	2.02	.82
	합계	00	3.81	1.02
슬픔	실험집단(n=8)	.14	1.16	.41
	통제집단(n=6)	-.19	2.58	1.05
	합계	00	1.82	.49
공포	실험집단(n=8)	1.45	2.35	.83
	통제집단(n=6)	-1.94	2.12	.87
	합계	00	2.78	.74
분노	실험집단(n=8)	1.59	3.28	1.16
	통제집단(n=6)	-2.12	3.93	1.60
	합계	00	9.92	1.05

<표 IV-8> 공감척도 하위요인에 대한 Ranked ANCOVA 검정

하위요인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기쁨	집단-간	87.44	1	87.44	10.38	.007**
	집단-내	101.06	12	8.42		
	합계	188.51	13			
슬픔	집단-간	.39	1	.39	.11	.748
	집단-내	42.76	12	3.56		
	합계	43.14	13			
공포	집단-간	39.38	1	39.38	7.73	.017*
	집단-내	62.12	12	5.09		
	합계	100.50	13			

	집단-간	47.17	1	47.17	3.71	.078
분노	집단-내	152.46	12	12.71		
	합계	199.6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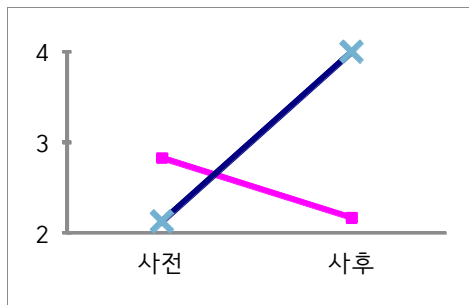
* $p < .05$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9>,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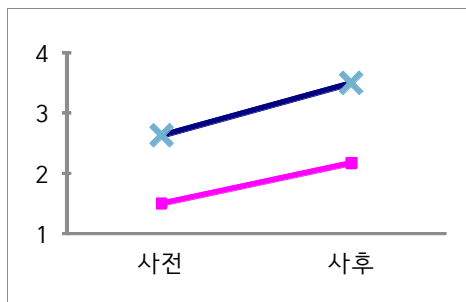
<표 IV-9> 공감척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쁨	실험집단(n=8)	2.13(.99)	4.00(1.60)	-2.25	.024 *
	통제집단(n=6)	2.83(1.33)	2.17(1.33)	-1.63	.102
슬픔	실험집단(n=4)	2.63(2.13)	3.50(2.27)	-2.33	.020 *
	통제집단(n=2)	1.50(2.35)	2.17(2.64)	-.82	.414
공포	실험집단(n=0)	2.00(2.00)	3.50(2.14)	-2.28	.023 *
	통제집단(n=-2)	1.50(2.26)	1.50(1.87)	.00	1.000
분노	실험집단(n=-4)	2.50(2.39)	4.13(2.10)	-2.03	.042 *
	통제집단(n=-6)	2.17(2.40)	2.00(2.00)	-.14	.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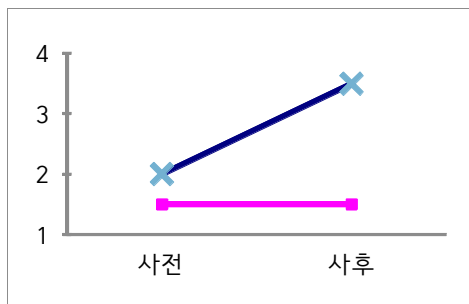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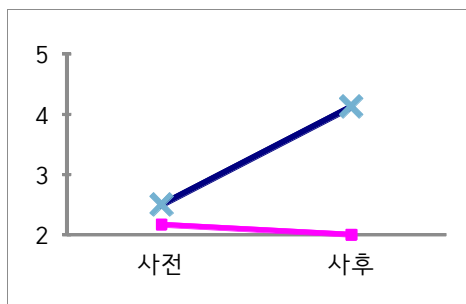
<그림 IV-2> 기쁨



<그림 IV-3> 슬픔



<그림 IV-4> 공포



<그림 IV-5> 분노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공감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성의 부족이다(윤수용,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사전-사후 변화의 추이에서도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공감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평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자가 구성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공감척도의 하위요인에 있어 기쁨과 공포의 감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5$),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그러나 공감척도 하위요인의 사전-사후 변화 추이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4가지 감정 모두 평균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점수체계는 측정의 신뢰도를 위해 요구되는 감정의 표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점수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쁨과 공포의 감정이 슬픔과 분노의 감정보다 명확한 감정반응과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차적 감정임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상황에 따른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좋음, 싫음의 일차원적인 감정 표현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신이 표현한 감정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행복, 슬픔 혹은 우울과 같은 이차원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표현한 감정에 대해 나누는 과정에서 전체 혹은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서적·인지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활동 안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선주(2005)의 음악을 통한 감정훈련이 지적장애 성인의 공감능력과 감정표현력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노래 활동을 통해 감정을 언어적·음악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중재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노래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노래가 언어의 인지적 요소와 음악의 감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주제를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으로(Baker & Wigram, 2008)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목소리, 멜로디와 리듬, 음색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었음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들은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거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에서 초기에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며 노래의 주제와 무관한 표현을 나타냈다. 그러나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노래 주인공 또는 가사와 동일시되어 이야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타인의 표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른 그룹원을 공감하

는 표현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음악적 요소와 가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부합되는 감정을 노래 안에서 공유하는 활동들이 공감을 일으켰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활동이 유아의 인지·정서·사회적 공감을 향상시킨다는 인지은(2017)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악기 연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이해를 돕고 상호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Nordoff와 Robbins(1983)의 이론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연주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신체적·음악적으로 공유하며 공감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활동 초반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하는 과정에 있어 특정한 모양이나 소리를 가진 악기에만 반응하거나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조건 세게 또는 아주 작게 연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활동 후반에는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에 따라 다양한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음악적 감정의 흐름에 따라 연주의 다이내믹을 조절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 다른 그룹원의 연주를 경청하고 언어적·음악적으로 반영해주거나 이들의 연주에 맞춰 자신의 연주를 조절할 수 있었다. 이는 노래 부르기과 악기 연주 등으로 구성된 음악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강화시키고 감정이입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남옥선(2007)과, 공감 훈련을 기반으로 한 음악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의 인지·정서·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임주영(2014)의 연구에 지지되는 결과로 악기 연주를 비롯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타인과 소통하도록 촉진하여 공감을 일으켰음을 나타낸다.

치료사가 구성한 음악 활동 안에서 음악은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어(Gaston, 1968)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게 표현하며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음악적 경험이 타인과 언어적·비언어적 교류를 이끌어냄으로써(Merriam, 1964) 발달장애인들은 타인의 감정을 정서적·인지적으로 자신에 빗대어 공감하게 되었음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들은 음악을 통해 촉발되는 감정을 집단원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지받고 동질감을 경험하며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더라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감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집단이 개인과 집단의 관련성을 증가시켜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Boxil, 1985) 집단이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서로를 조율하고 맞춰 나갈 수 있었음으로 해석된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특수 학급 혹은 각종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교수법이 아닌 음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의 공감능력 향상이 가능하며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인지·정서·사회적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실시한 연구는 부재하며 이들의 공감능력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도움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수단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복지관 한 군대를 선정하여 해당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지관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취업준비생 인원이 한정적일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집단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마저도 취업반이라는 특성상 취업을 나간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워 인원의 탈락이 불가피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참여 인원 확보 및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집단의 비례적인 구성을 위해 표집범위와 크기를 확대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분기별로 계획되는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프로그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구 오염 방지를 위해 최대한 외적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정서에 맞춰 번안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 척도는 발달장애인의 구두 응답에 따라 점수화하는 비표준화 검사로 객관성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감능력 척도는 일반 학생을 위한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와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나 보호자로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찰척도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달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부재하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보고 과정에서 교사나 보호자 등 제 3자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유아 관찰척도 대부분

은 유치원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 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자기보고를 할 수 없는 대상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된 척도 및 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공감능력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 (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연구**, 19(1), 1-22.
- 강석순 (2004). **공감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 고명균 (2016). 발달장애인 직업재활·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학술대회**, 2016(6), 69-75.
- 구신실 (2012). 장애학생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377-393.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김경미 (2011).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기중 (2004). **공감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김미영, 이소현, 최윤희 (2006). 통합 환경에서의 상황이야기 중재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유아와 일반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6(1), 85-107.
- 김유진 (2014). **공감훈련에 기반 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공감능력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심리행동연구**, 6(2), 1-26.
- 김은영 (2004). 음악이 기분 반응과 기분 일치성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1), 48-65.
- 김재휘, 박은아 (2009). **광고 심리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열 (2011).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분석. **발달장애연구**, 15(4), 1-20.
- 김주영 (2005). **통합교육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지수 (2015). **음악치료 전공생의 감정 조절을 위한 음악활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지은 (2016). **창작 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혜영 (2016). **예비간호사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기반 공감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남옥선 (2007).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2), 18-40.
- 두산백과사전 (2017). <http://www.doopedia.co.kr>.
- 문장원 (2016).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기술 중재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론 검토. **정서·행동장애연구**, 32(1), 235-250.
- 박경숙 (2002). 발달장애학생의 교육대책과 과제. **발달장애연구**, 6(2), 89-117.
- 박경화, 정광조 (2005). 음악활동이 특수아동에게 미치는 치료적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 1-26.
- 박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서정 (2015). **아스퍼거 장애 청소년의 진로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 박석돈 (200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2, 1-13.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 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승희, 박현숙, 박지연, 이숙향 (2012).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성인기 전환에 영향을 준 요소와 전환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7(2), 141-175.
- 박열 (2017). *선법성이 사용된 팝 음악에 관한 연구-선법 하위 집단 설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 박영선 (2009). *대중음악이 중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음악 교육의 방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박재국, 김영미, 김혜리, 구신실 (2008).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전환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239-255.
- 박현옥, 김은주, 유숙렬 (2004).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상황이야기 개발'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71-198.
- 박혜영, 박부진 (2012).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1, 69-83.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박혜전 (2014). 장애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에 관한 연구. *복자상담교육연구*, 3(1), 1-28.
- 반지정 (2010). 사회적 상황이야기가 고기능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심리행동연구*, 2(2), 77-91.
-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http://www.law.go.kr>.
- 손현자 (2009). *가정폭력 피학대 여성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 만들기.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심혜미 (2015). 내러티브 중심 집단미술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공감능력
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 양종모 (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41(2), 227-255.
- 오선화 (2004). 음악치료의 이해. 서울: 홍익재.
- 윤선아 (2010). 통합 상황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
아의 공감능력, 정서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수용 (2015). 직업재활훈련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 윤치연 (2003). 발달장애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이강선 (2014).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공감능력, 정서
인식력, 냉담-무정서 특질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
대학교.
- 이경화 (2008). 즉흥연주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
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이달엽, 박희찬, 김동일, 박혜진 (2004).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적응기술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4(1), 183-215.
- 이성하, 나운환 (2012).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이후 전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지적장애연구, 14(4), 255-292.
- 이수경 (2005). 음악감상 중재와 리듬연주 중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승현 (2013). TV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이 수용자의 몰입과 기억에 미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 이정남 (2008). **사회상황이야기 활용이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 (2002). 발달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발달장애연구**, 6(2), 213-229.
- 이지아 (2005). **음악치료를 통한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 이지영 (2006). **공감을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용서수준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이지영 (2013). **통합 환경에서 상황이야기 중재가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 이채원 (2016). **통합예술치료를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증진: 'I Therapy' 매뉴얼을 기반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인지은 (2017).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 임유경, 오경자 (2010).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민감도: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9(4), 1029-1046.
- 임주영 (2014).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적용 연구: 초등 5학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우영, 황순영 (2016). ADHD 아동의 공감능력과 공감 프로그램 적용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163-189.
- 장영민 (2015). 학교와 지역기관 간 교육적 협력을 통한 진로·직업교육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학생들의 인생태도와 직업준비에 미치는 효과.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2), 219-237.

- 정진아 (2016). **퓨전 합창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공감 형성과정 탐색 실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 (2005).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정효숙 (2008).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1), 25-56.
- 조영수 (2001). **음악이 개인심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은희 (200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 플루트 앙상블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47-167.
- 조정은 (2010).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사회적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7), 77-99.
- 주효주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진선주 (2005). 성인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1), 17-33.
- 최아람 (2012). **음악 감상에서 가사의 유무가 직장인들의 기분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인숙 (2007). **선법을 사용한 선율의 연구-토마스 뉴먼의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소림 (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장애 청소년의**

-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지혜 (2010).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음악인지능력과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 최평임 (2009).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발달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추연구 (2014). DSM-5의 개정에서 본 발달장애의 새로운 진단명과 진단 기준 그리고 ASD의 명칭 도입과 ADHD의 변화. *발달장애연구*, 18(4), 1-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http://www.kead.or.kr>.
- 홍기묵 (2004).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홍화진 (1987). 아동의 공감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유나 (2011). 토마스 뉴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교회선법과 영화장면의 상관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 황준성 (2013).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직업 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지*, 1(1), 1-28.
- Baker, F. & Wigram, T.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최미환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Boxil, E. H. (1985)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Rockville: Aspen Publishers.
- Bruscia, K. E. (1989). *Defining Music Therapy*. Pennsylvania: Spring House Books.

- Bruscia, K. E. (1998).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모델*. 김군자 역. 경기: 양서원 (원서출판, 1987).
- Drosser, C. (2015). *음악 본능-우리는 왜 음악에 빠져들까?*. 전대호 역. 서울: 해나무(원서출판, 2011).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and Seven-Year-Olds. *Child Development*, 39(1), 133-145.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Y: Macmillan.
- Gruenhagen, K. A. (1982). Attitudes of fast food restaurant managers towards hiring the mentally retarded: A survey.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for exceptional individuals*, 5(2), 98-105.
- Leiberg, S. & Anders, S. (2006). The multiple facets of empathy: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Progress in Brain Research*, 156, 419-442.
- Merriam, A. P.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Chicago: Northwest University Press.
- Miller, R. (1996). *Modal Jazz Composition & Harmony*. Rottenburg: Advance music.
- Nordoff, P. & Robbins, C. (1983).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Saint Louise: MMB Music.
- Yalom, I. D. & Leszcz. M.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장성숙, 최해림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원서출판, 2005).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Empathic Ability of Job Applic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in, Dami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on empathetic ability for job applic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 job applic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o belonged to a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located in Gyeonggi-do, and of them, eight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six, to a control group.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50 minutes a total of 12 sessions from March 20 through April 28, 2017.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empathy scale was utilized.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For data analysis, SPSS 20.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examine

if the program would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anked ANCOVA was used, and a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pre-post test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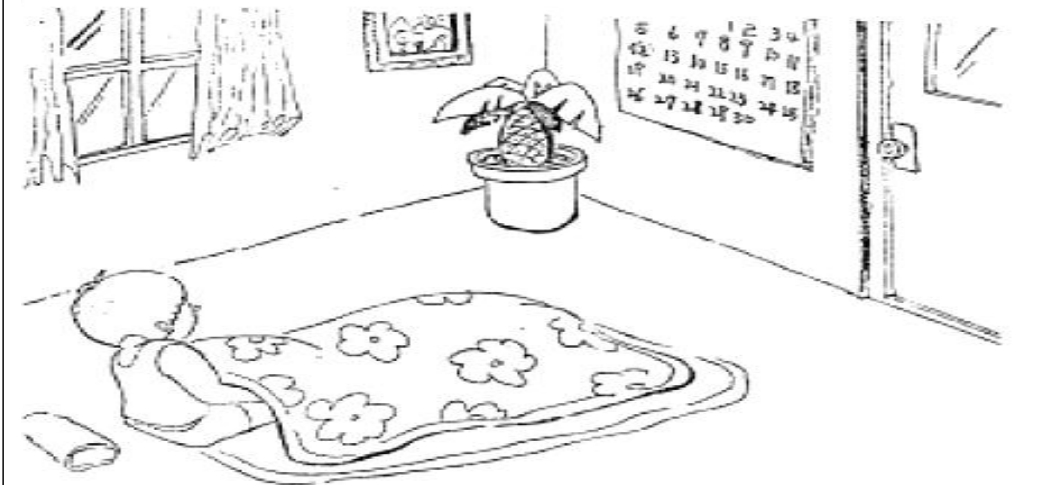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in their empathic abilit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of job applic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o participated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in the change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score, the empathic abilit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while the average score rather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not showing an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his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 empathic ability of job applic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부 록

- 공감척도(홍화진, 1987).

기쁨 1.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오늘이 철수의 생일인 것을 알았어요.



철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철수는 친구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과 케이크를 친구들과 나누어먹으며 생일파티를 했어요.

기쁨 2.



영이는 노래자랑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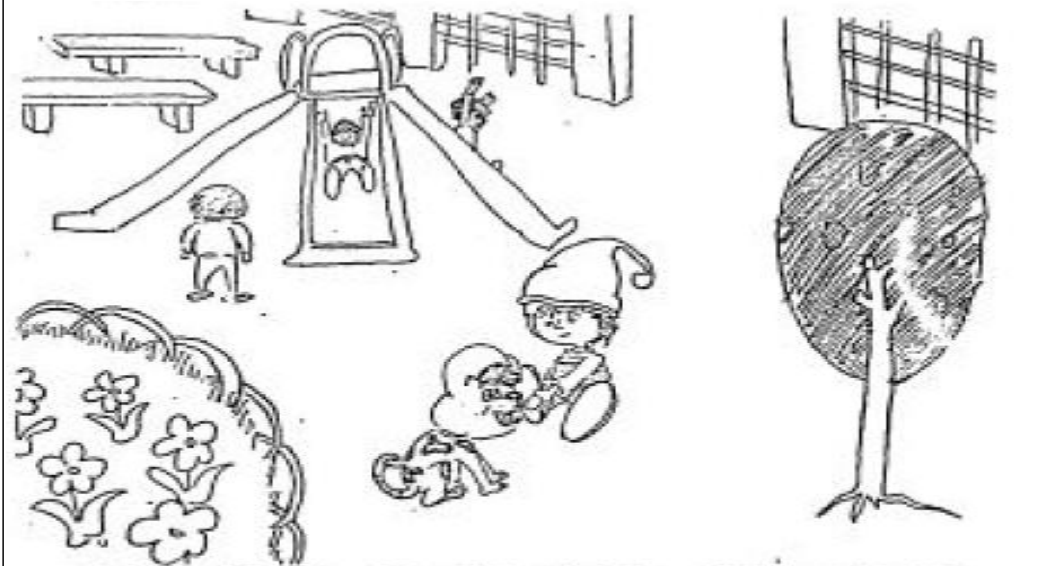


노래자랑대회에 나간 영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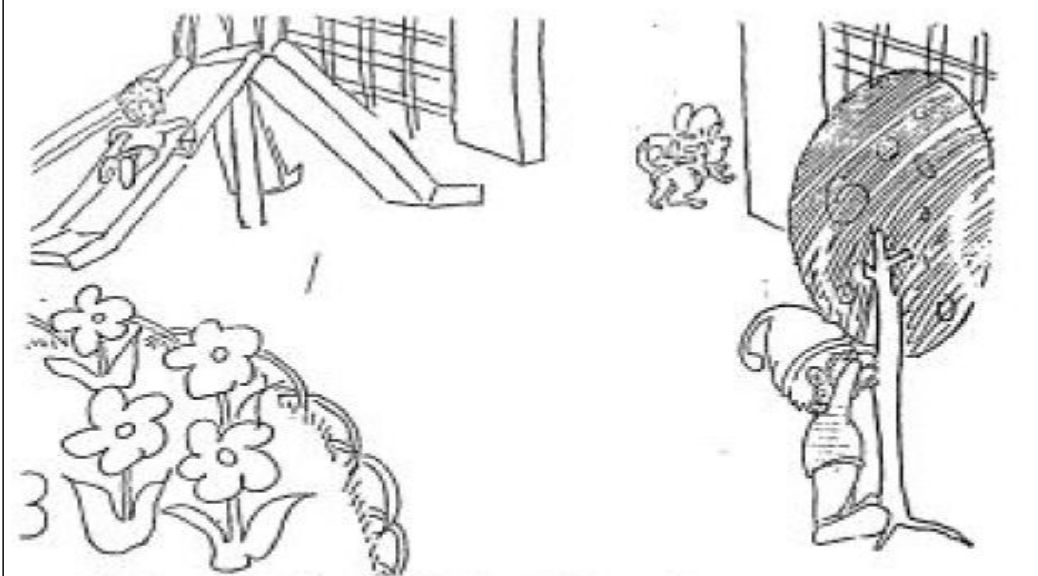


영이는 1등을 해서 상장과 상품을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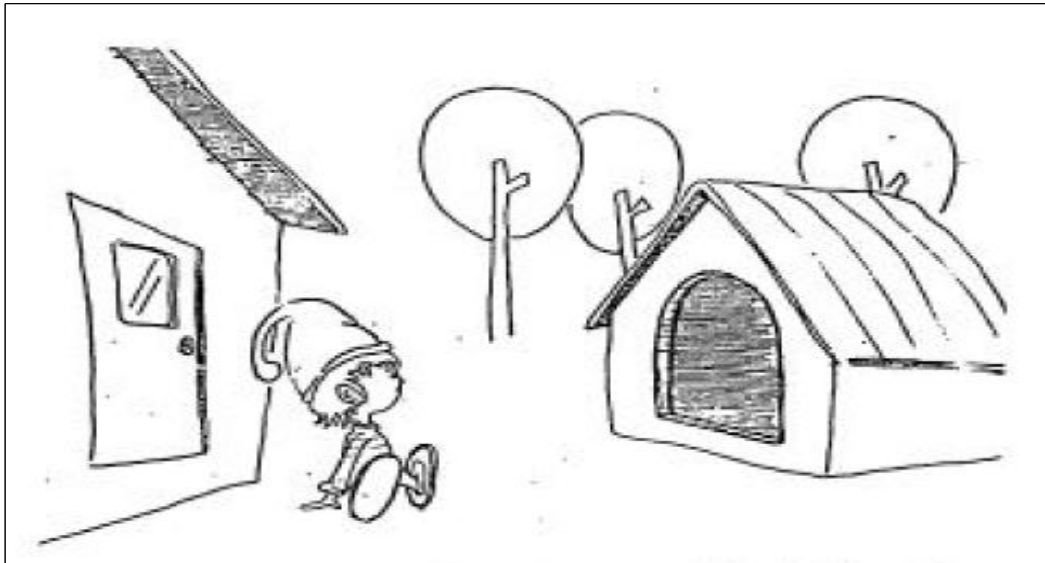
슬픔 1.



영수는 바둑이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영수는 바둑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영수는 바둑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바둑이가 숨는다고 놀이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영수는 아무리 바둑이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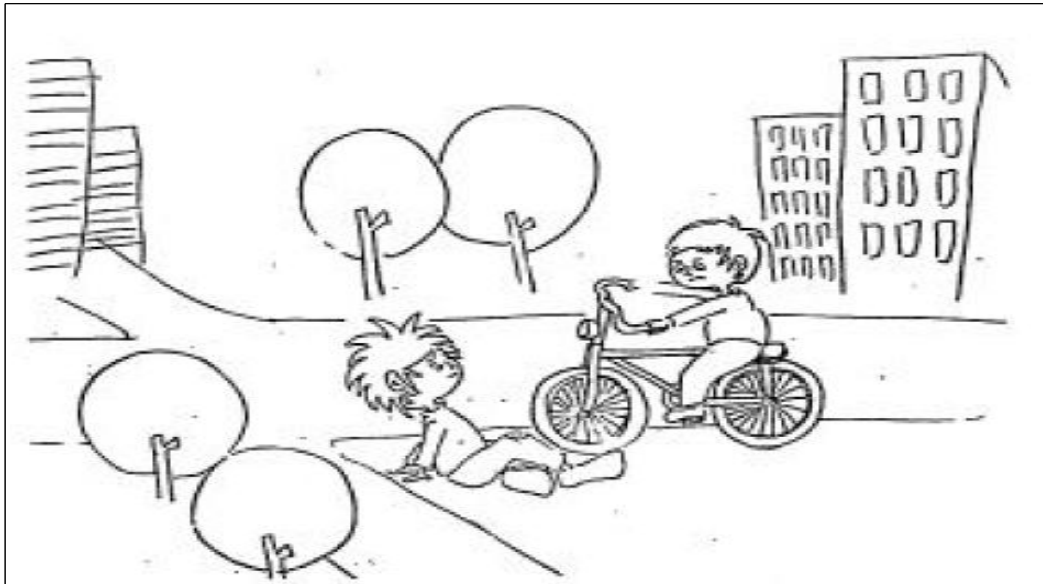


집에 돌아와 바둑이의 빈집을 쳐다보며 바둑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바둑이는 영영 어디론가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슬픔 2.



영이는 내일 쇼핑가는 날이에요. 쇼핑에 김밥, 사탕, 콜라 등을 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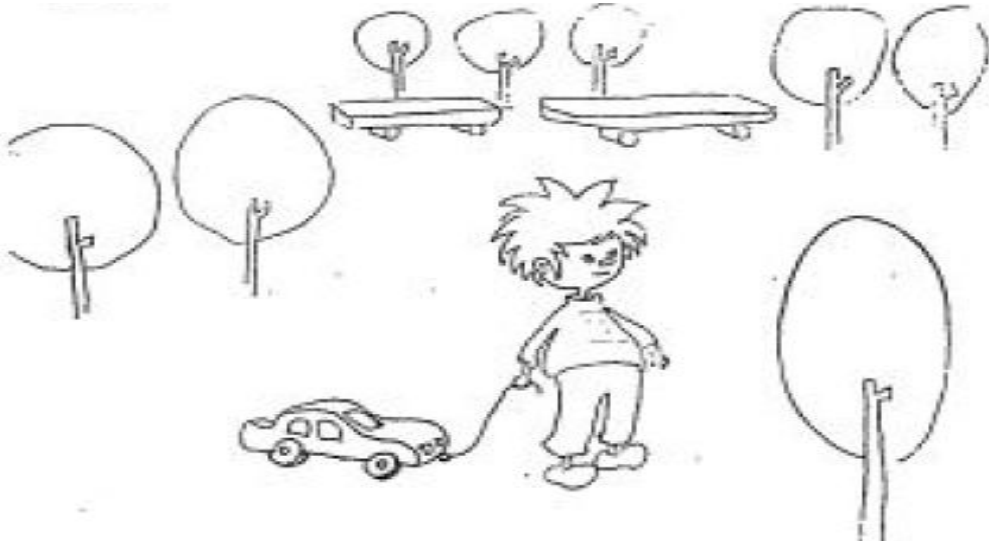


영이는 저쪽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에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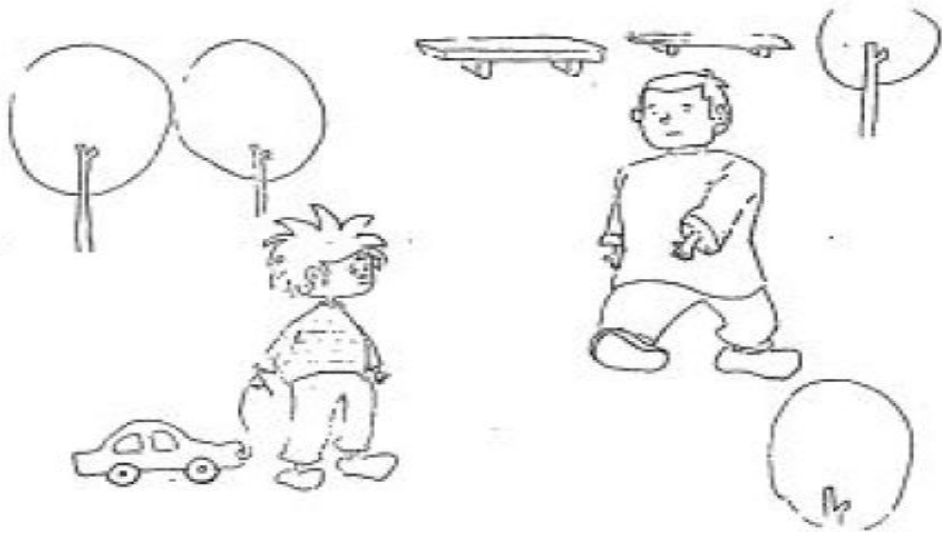


영이는 다음날, 다리가 아파서 소풍에 가지 못하고 혼자 방에 누워있어야만 했어요.

분노 1.



민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때 저쪽에서 민수보다 큰 아이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큰 아이는 민수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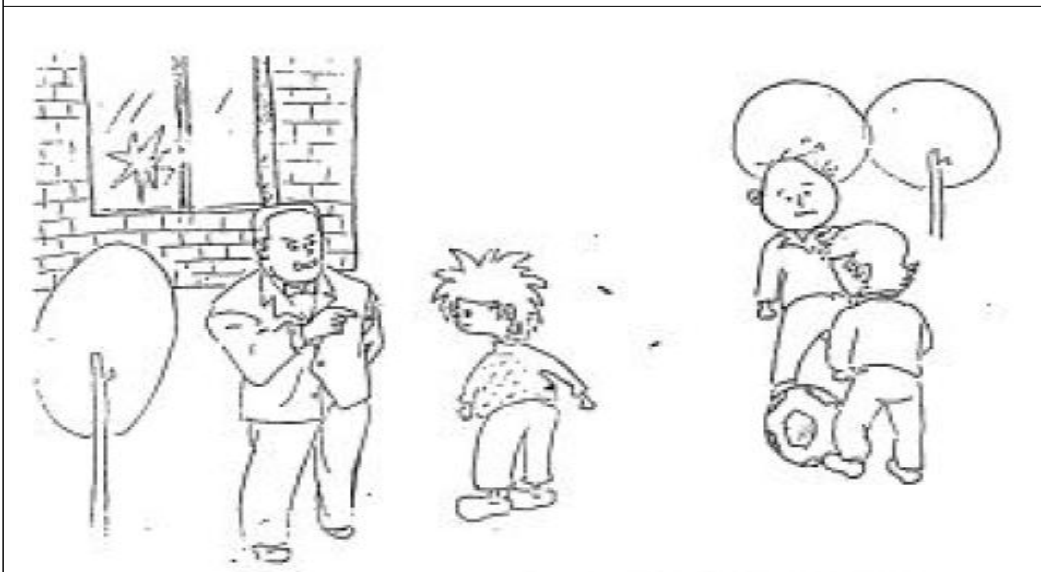
분노 2.



영이는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영이는 유리창이 깨진 줄도 모르고 계속 놀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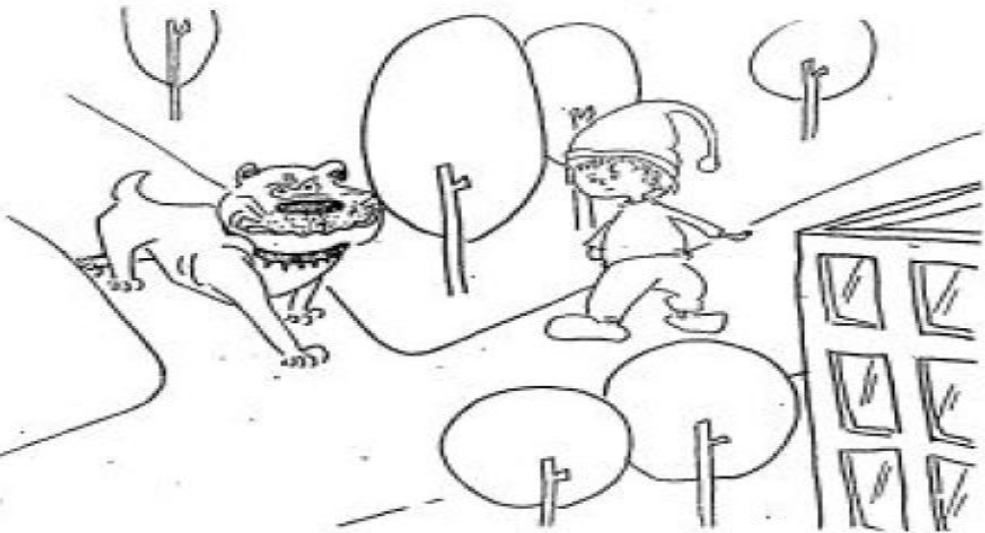


유리창이 깨진 집주인은 영이가 깨뜨리지도 않았는데 영이를 매우 야단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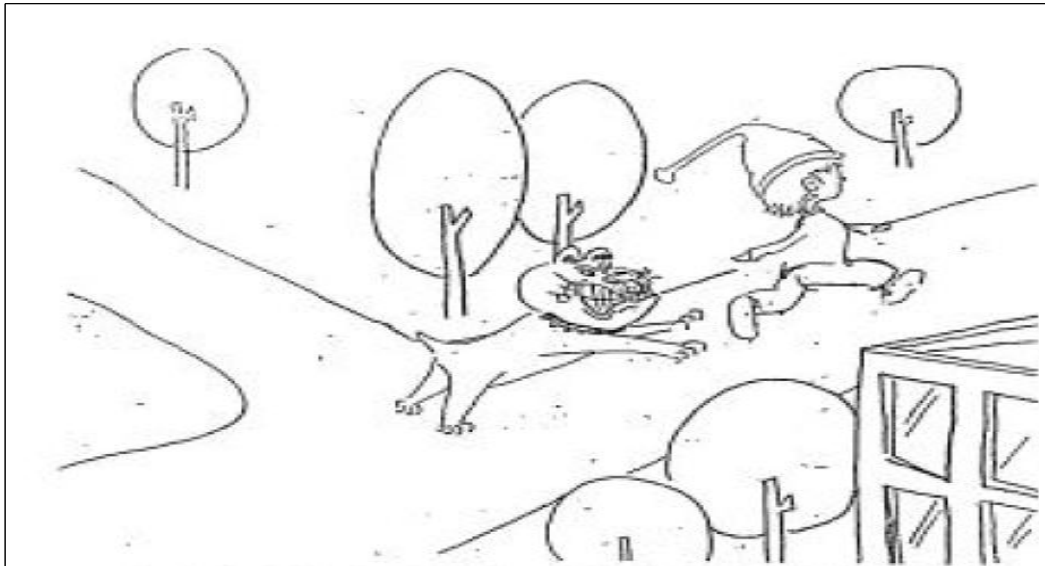
공포 1.



광수는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돌아서다가 광수는 큰 개를 만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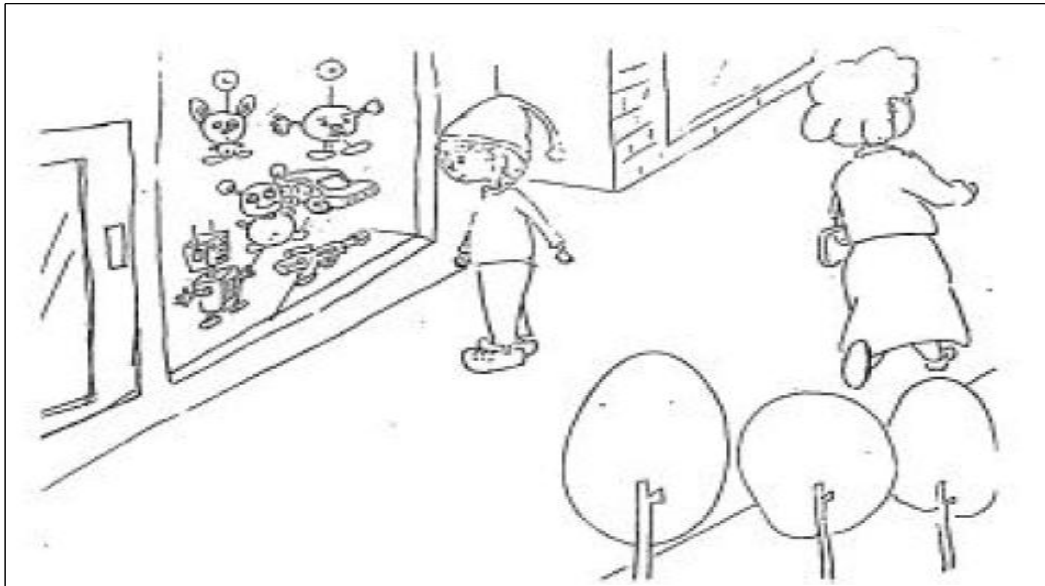


큰 개는 광수를 보더니 으르렁 으르렁 짖어대며 달려들었고,
광수는 도망쳤어요.

공포 2.



영이는 엄마와 함께 시내에 구경을 갔어요.



영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이는 길도 모르는데 날까지 어두워지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질문	1.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0-8점
	2. 이야기를 듣고 OO씨는 어떻게 느꼈나요?	0-8점
점수 산출 방법	0점 : 틀린 답이나 무반응 1점 :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차원에서 맞는 대답 2점 : 감정에 대해 정확한 대답	
질문	3. 주인공을 보고 OO씨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12점
점수 산출 방법	0점 : 응답의 결여 1점 : 자기중심적 해석 2점 : 에피소드의 상황만을 중심으로 해석 3점 : 주인공의 정서적 경험을 상황과 직접적으로 참고하여 해석	